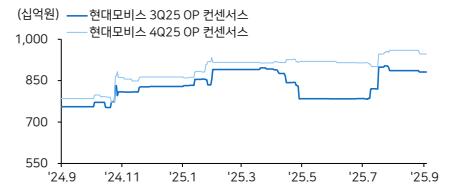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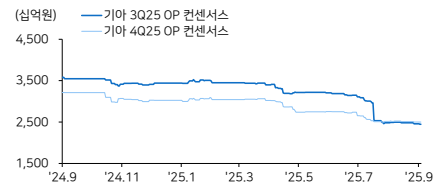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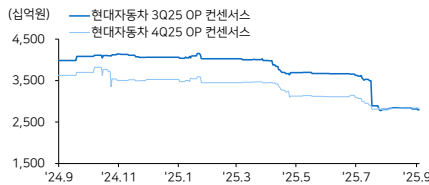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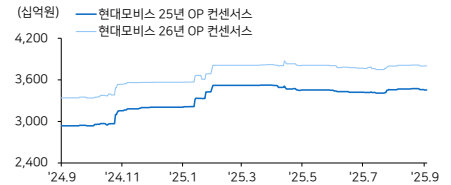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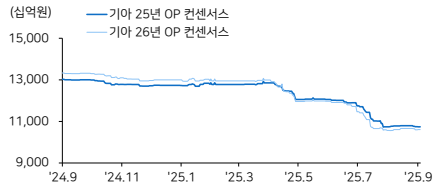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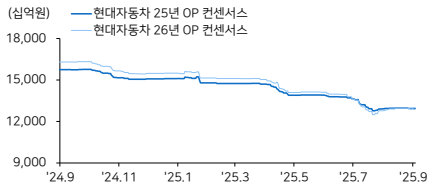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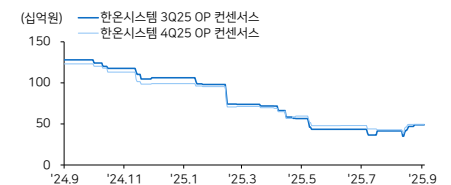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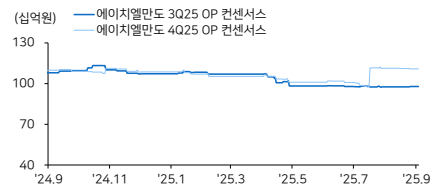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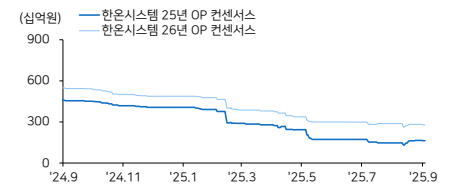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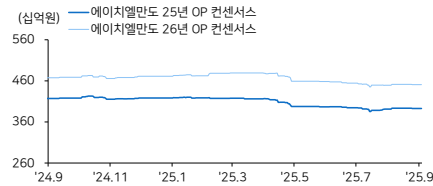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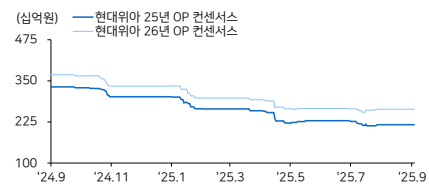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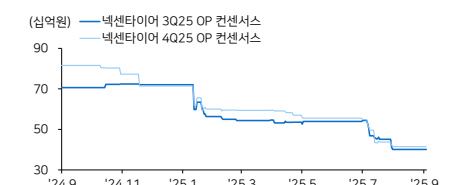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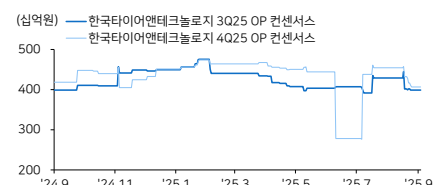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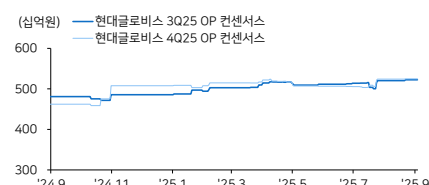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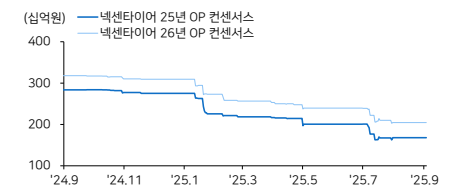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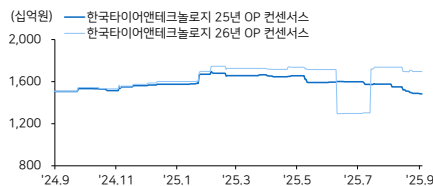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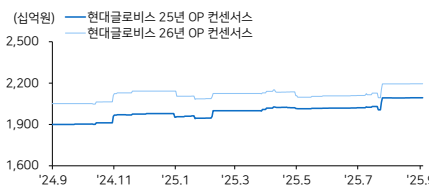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美, 한국산 수입 1년새 4조 줄여... "관세 총액, 3분기 더 위기" (동아일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2Q25 미국의 자동차·TV 수입은 각각 21%·18.6% 감소하며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 기업들은 총 20.6조원 규모 추가 발생. 한국 기업들은 하반기부터 재고 소진과 25% 자동차 관세 적용으로 수출 위축 가속화 전망
<https://han.gl/4ulru>

Xiaomi EV delivers record 36,396 cars in Aug, with YU7 SUV nearly tripling from Jul (CnEVPost)

Xiaomi EV는 8월 36,396대를 인도하며 2개월 연속 3만대 돌파. 중국 NEV 시장 내 3.3% 점유율 달성. YU7는 16,548대로 7월 대비 +174% 증가해 전체 인도의 45.5%를 차지. SU7은 19,848대를 기록, 누적 33.9만대 인도되며 전체의 89%를 기여
<https://han.gl/Xd3Rw>

Automakers' share in China NEV market in Aug: BYD leads with 27.8%, Tesla 5th with 5.1% (CnEVPost)

중국 NEV 시장에서 8월 BYD는 31만대 판매로 1위 (27.8% 점유율)를 유지, Tesla는 57,152대로 5위 (5.1%)로 상승. Geely는 134,405대로 2위 (12.1%), Changan이 72,338대로 3위 (6.5%), Xiaomi EV는 처음으로 10위에 진입함
<https://han.gl/생예>

Nio to issue new shares to raise about \$1 billion (CnEVPost)

NIO는 약 1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1억 8,182만 주의 신주를 발행. 이 자금은 전기차 기술 R&D, 배터리 교환 및 충전 네트워크 확장, 재무 건전성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 4분기에 첫 분기 흑자를 목표로함
<https://han.gl/aOXxj>

현대차, 알제리 현지 생산 본격화... "그랜드 i10" 등 연간 5만대 예정 (데일리안)

현대차는 2026년부터 알제리 현지 공장에서 그랜드 i10, 신형 엑센트 등 소형차 5개 차종을 순차적으로 생산하며 북아프리카 시장 공략 강화. 연간 5만대 생산 능력의 CKD 공장을 설립하고, 48개 판매·서비스 거점 및 전략 부품창고를 운영 계획함
<https://han.gl/TsCP9>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 관세부와 예고... "자동차 50%" (연합뉴스)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승용차, 전자 부품 등에 대해 수입 관세 부과 계획. 중국과의 무역 적자 감소와 자국 산업 보호 위한 조치. 승용차 관세율은 현재 2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 전망. 멕시코를 우회 수출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포함
<https://han.gl/rWC6>

유럽 소비자, '중국차 선호도' 미국차 추월... 중국 47% vs 미국 44% (글로벌이코노믹)

유럽 5개국 설문조사에서 다음 차량으로 중국 브랜드를 고려하는 비율이 47%로 미국(44%)을 앞섬. 중국차에 대한 신뢰도는 19%로 상승, 대신 소비자의 72%는 기존 차량보다 저렴해야 한다고 답함. 중국 브랜드의 유럽 시장점유율은 4.8%로 증가
<https://han.gl/UyysE>

배터리·로봇·AAM 中업체 '독무대'...獨 한복판서 기술력 과시 (서울경제)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중국 업체들이 EV, 배터리, 로보틱스, AAM 분야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선전. Xpeng은 휴머노이드 Iron (22 DOF, 내년 양산) 실물과 AAM 모형 (5천대 선주문)을 공개, L4 자율주행 로보택시 목표를 제시했음
<https://han.gl/8JyeO>

현대차·기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골든타임' 잡았다 (동아일보)

현대차그룹은 7월까지 유럽에서 10.6만대 (+46% YoY) 전기차를 판매, 역대 최단기간 10만대 돌파를 달성. 독일에서는 현대차(28%), 기아(23.1%)의 전기차 비중이 시장 평균(17.8%)을 크게 웃돌았으며, 소형 전기차 콘셉트로 유럽 공략 강화 중
<https://han.gl/00Nqp>

현대차, 러시아 공장 '바이백' 검토...계열사 조사 (한국경제)

현대차그룹은 미국 관세 여파 속 글로벌 사업장 현황 점검 강화, 2023년 14만원에 매각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HMMR)의 바이백 옵션(2025년 12월 만료)을 검토 중. 바이백 시 재매입 비용은 공장 개조·생산 호조 반영에 1조원 규모
<https://han.gl/10LE>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